

한국전력공사 합격 자기소개서

직무 : 인턴

1. 인생의 큰 목표 세운 경험, 목표 실현하기 위해 귀하가 취한 행동, 결과 등 구체적으로 기술

<검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법학과에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형법이라는 과목에 흥미가 있고 재밌었습니다. 그러던 중 변호사 보다는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재판을 집행하는 검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3학년까지 다니고 휴학을 하여 사법고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법고시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과정에 자신감은 점점 상실되고 위축되어 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공부를 계속할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사업을 중간에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졸업을 유예하고 취업의 나이를 훌쩍 넘기는 지금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록 사법고시에는 떨어져서 검사의 꿈은 사라졌지만 취업을 하기 위해 다른 진로를 정하고자 합니다.



2.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로 인해 계획했던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끝까지 수행해내어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던 경험이 있다면 기술

<중앙대학교 수시 합격>

고3시절 수능시험을 보고 성적통지서를 받아봤을 때 정말 좌절했던 것이 답안지를 밀려 쓰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가채점보다 매우 낮은 성적에 재수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노랑진 재수학원을 다니던 중 중앙대학교에 수시를 지원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수능공부와 인·적성 공부를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꼭 붙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말 열심히 병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인·적성 시험에 합격을 하고 면접까지 있었던 터라 그동안의 면접 준비를 모으고 알지도 못했던 그 당시 중앙대학교에 다니던 선배와 메일을 주고받으며 예상 면접 문제를 준비했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속담을 맨몸으로 체험했던 시절이었습니다.

3. KEPCO에 근무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전문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인 동기, 노력의 내용, 결과에 대하여 기술

<공공기관에 입문하자>

사법시험을 접고 제가 처음 준비한 것은 한국사능력시험이었습니다.

취업을 처음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사능력시험 자격증을 가점을 준다는 것을 알고 한국사라는 과목이 방대하지만 열심히 준비하여 2급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지식은 아니지만 겨울철 전력사용 절전을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안에서 뽁뽁이 붙이는 것은 기본, 안 쓰는 전기코드 뽑는 것은 저의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생활 속의 실천을 하는 사람이야 말로 KEPCO에서 일 할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닐까합니다.

4.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일을 처리한 경험

<희생을 공생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대학교 시절 바로 위 학번 선배들과는 사이가 안 좋은 저희 학회는 유난히 제가 속한 03학번과 02학번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수를 했기 때문에 02학번선배들 중에 동갑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두 학번 사이에 정검다리가 되려고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먹어가며 선배들의 따가운 욕도 들으며 그동안의 오해들을 푼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학점은 너무 안 나왔지만 위 학번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은 관습을 없앨 수 있었으며, 지금은 누구보다 서로 챙기며 서로 힘든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학점보다는 인생의 좋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어서 지금도 행복합니다.

그리하여 저의 마인드는 '나하나 희생해서 여러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기꺼이 희생하리라'